

2006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이지영(서울대 기초교육원)

1. 들어가며
2. 작품 중심 연구
 - 2.1. 15세기 이전
 - 2.2. 15-16세기
 - 2.3. 17세기
 - 2.4. 18-19세기
 - 2.5. 20세기 전후
3. 주제별 연구
 - 3.1. 고전소설의 현대적 의의
 - 3.2. 소설의 향유와 유통
 - 3.3. 비교문학적 접근
 - 3.4. 기타
4. 덧붙이는 말

1. 들어가며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논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 이용한 것은 인터넷 검색이다.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국회도서관 사이트의 학문논문 중에서 ‘국어국문학’ 분야의 ‘문학(800)’을 조건으로 하여 2006년도에 나온 것을 검색하였고 각 대학의 도서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단행본 검색은 국회도서관과 인터넷서점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그리고 학술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 이용하여 분야별 간행기관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1. 누리미디어 <http://www.dbpia.co.kr/>
2.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3. 학술교육원 <http://www.earticle.net/>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한 결과 2006년도에 나온 박사학위논문 18편, 석사학위논문 22편을 찾을 수 있었다(교육대학원 논문 제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40여 편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비해 단행본은 지난해에 비해 적었다. 특히 역주본을 제외하면 단행본은 모두 13권 간행되었다. 이 중에서 학위논문을 간행한 것이 6권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연구논문을 다시 편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행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역주본이나 현대어역본이다. 작년 한 해에 나온 역주본 및 현대어역본은 모두 12권이였다.

학회지에 게재된 소논문은 주제와 방법 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학회의 기획에 따라 쟁점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 주요 학회에서는 고전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기획이 많았다. 고전문

학회의 하계 학술회의에서는 “매체 환경 변화와 고전 텍스트”를, 한국고소설학회 11월 학술회의에서는 “고소설과 문화콘텐츠”를, 한국한문학회에서는 30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을 각각 기획주제로 하였다. 이같은 기획은 고전이 현대독자와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전작품을 상품성으로만 부각시키는 경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한국고전문학연구』 13호의 기획특집으로 <소현성록> 연작을 집중조명하였으며, 14호의 기획특집으로는 “고전문학과 편견”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또한 판소리학회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를 기획주제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해 나온 연구논문을 작품을 중심으로 접근한 논문과 주제별로 접근한 논문으로 나눈 후 작품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는 다시 대상 작품의 창작시기에 따라 정리하면서 연구동향을 살펴보겠다.

2. 작품 중심의 연구

작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대상작품의 창작 시기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였고, 시기에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초기서사, 15-16세기 소설, 17세기 소설, 18세기-19세기 소설, 20세기 이후의 소설로 나누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창작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에서 추정한 창작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필사본만 남아 있으면서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8-9세기 작품과 함께 고찰하고,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만 존재할 경우에는 20세기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2.1. 15세기 이전

15세기 이전에 창작된 서사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흔히 대상 텍스트가 ‘소설’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곤 한다. 김승호는 팔만대장경 간행경위를 적은 ‘해인사유진팔만대장경개간인유’를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논하고 있으며, 오대혁은 ‘백월산양성성도기’등 불교계 전기소설의 소설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동남어문학회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한 특집을 기획하여 편찬 의도나 텍스트 형성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며(정규식, 정환국, 한예원), 각 설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2.2. 15-16세기

『금오신화』나 『기재기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작품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아직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일용은 <남염부주지>의 이중적 담론방식의 역설의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태화는 <서재야회록>에 대한 새로운 작품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윤채근은 실록을 기록을 중심으로 『기재기이』의 창작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밖에 조현우는 <화사>의 서술체재를 통하여 방외인으로서의 작가의식을 살펴보았으며, 별도의 논문에서는 몽유록과 당대 성리학적 역사관의 관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2.3. 17세기

17세기는 보다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면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연구도 적지 않다.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소현성록>을 특집으로 기획하여 작품에 대한 다각적인 조명이 이루어졌다(김경미, 박일용, 임치균, 조혜란, 지연숙). <구운몽>에 대해서는 정병설이 구운몽을 소재로 한 그림에 대해 소개하고, 이강엽이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분석을 시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었다. 또한 박영희는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등에 나타난 고모의 모습을 통해 이 시기의 출가의인 담론에 대해 논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창작된 한문서사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정길수는 1인칭 일기체 서사의 특징을 가진 <흑의인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권혁래는 <김영철전>의 작가에 대해 추정하였고 손찬식은 이수광의 <조완벽전>에 나타난 월남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몽유록에 관한 연구로는 김용수가 <피생명몽록>을 통해서 이극신에 대한 인물평가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한편, 이본검토나 향유양상과 같은 텍스트 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정명기는 <위경천전>의 이본인 <위생전>을 중심으로 정본의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김준형은 『천예록』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천예록』의 원형에 대해 추정하였고, 소인호는 『화몽집』을 중심으로 이 시기 소설의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2.4. 18-19세기

현재 전해지는 대다수의 작품이 18세기 이후에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기는 소설사에서 중요하다. 그만큼 연구가 특히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영웅소설류부터 보자.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임경업전>에 대해서 이재영과 이명현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관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임철호는 <임진록>의 이본인 <흑몽일기>에 대해 소개하였다. 김병권은 <소대성전>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에 반영된 작가의 서사적 의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김현양은 가족을 키워드로 하여 <유충렬전>을 분석하였다.

한문소설에 대해서는 그리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잠녀전>(이후성)이나 <여용국전>(이민희), <편육기우기>(한의승) 등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한문단편소설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며, 정인혁의 학위논문은 전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으면서 전과는 다른 담화방식을 보이고 있는 ‘전계 단형서사체’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다.

야담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논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야담의 연구방법과 시각을 제시한 이강욱의 단행본이 나왔으며,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이 있었다(김위경, 김혜정, 방동수). 또한 <요로 원야화기>의 이본을 조사한 연구(김수영)가 있었으며 편견에 초점을 맞추어 야담을 분석한 연구(정하영)가 있었다.

이밖에 정환국과 김중균은 각기 허생고사나 대도설화를 중심으로 당대 사회의 담론을 살피고자 했으며, 김현영은 <왕회전>과 <금화사몽유록>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차충환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장편한문소설 <오로봉기>에 대해 고찰하였다.

장편의 한글대하소설에 대해서는 <문장풍류삼대록>이나 <효의정충예행록> 등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작품에 대한 연구(차충환)가 계속되는 한편, <취미삼선록>, <한조기봉>, <옥환기봉> 등 파생작 관계에 있는 세 작품들에 대한 논의(임치균)가 있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장시광), 여성의식

(정영신, 최수현)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이 밖에 역사와 허구의 축을 중심으로 장편 대하소설의 서술방식을 고찰한 논의(서정민, 한길연)도 있었다.

단편의 한글소설에 대해서는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논의(서혜은), <장화홍련전>의 무속적 세계관에 대한 연구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한 연구 외에도 <유씨전>(곽정식), <김해진전>(최운식), <삼쾌정>(육재용) 등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작품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영웅소설로 분류되는 단편 한글소설과 관련해서는 한국고전연구학회의 기획발표로 영웅소설사를 검토한 서인석의 논의가 있었으며, <김희경전>의 이본인 <김상서전>을 중심으로 여성영웅소설의 변모를 고찰한 정준식의 연구가 있었다.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본에 대한 연구(배연형)와 새로운 작품에 대한 연구(배연형), <계우사>와 **당대 문화적** 상황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김윤희), <춘향전>의 향유에 관한 연구(진은진) 등이 있었다.

2.5. 20세기 전후

이 시기에는 필사본과 활자본이 공존하는 작품이 많다. 정용문은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을 비교하여 그 변모양상을 고찰하였고, 육재용은 변안소설로 인식되곤 하는 <강릉추월전>의 창작성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김준형은 1930년대 **<옥소선> 이야기**의 존재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오운선은 <옥중화>를 대상으로 이해조의 판소리 개작의식의 보수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신구소설 전환기**의 구소설의 변모양상에 대해 주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활자본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김정녀는 <방한림전>의 여성의식에 대하여 이지하는 <반씨전>의 동서갈등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3. 주제별 접근

3.1. 고전소설의 현대적 의의

2006년도에는 특히 고전소설이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가공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각 학회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기획한 영향이기도 하다. 한국고전문학회에서는 여름 학술회의에서 “매체 환경 변화와 고전 텍스트”를 주제로 하였고, 한국고소설학회에서는 11월 학술회의에서 “고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한문학회는 30주년 기념학술회의의 기획주제로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을 다루었다. 이 같은 최근의 동향은 문학 연구가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시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과 이로 인한 연구자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 자체는 시의적절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즉 이러한 논의가 학문적 깊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혜란과 이지양, 김진영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김풍기와 신선희는 고전소설이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밖에 신익철은 현대 영상물에 야담문학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였고 조혜란은 한문단편 <김녀>의 소재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정원은 소재나 삽화가 아닌 캐릭터 차원에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3.2. 소설의 향유와 유통

다양한 형식의 이본으로 존재하는 고전소설의 속성상 이본연구는 기초연구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향유방식에 대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방각본에 대한 연구로는 경관방각소설의 간기에 대한 이창현의 논의와 안성관 방각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이정원) 및 출판상황에 대한 고찰(최호석)이 있었다. 필사본이나 방각본 등 특정한 형식의 <춘향전>의 이본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문성, 전상욱)도 있었으며, 형식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권승공의 논의가 있었다. 이밖에 엄태웅은 신구서림본 활자본 고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여 주목된다.

한편, 한문과 한글의 이중언어 상황에 대해서는 안대희의 통시적 고찰이 있었으며, 이서나 역관 계층의 향유에 관한 신상필의 연구가 있었다.

3.3. 비교문학적 접근

고소설학회에서는 지난 해 1월 “한국·월남·중국의 한문소설 관련 양상”을 주제로 베트남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중국의 서사물에 대한 다양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길수는 편력구조의 공통점을 보이는 한중일의 세 작품 <구운몽>과 <육보단>, <호색일대남>을 비교하여 각각의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 야마다 료코는 애정에 초점을 맞추어 17세기부터 19세기의 한국과 일본의 소설을 비교하였으며, 장연호는 한국과 중국의 송사소설을 비교하였다.

3.4. 기타

최근 고전소설 연구는 새로운 작품이 추가되어 영역이 획적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분석방법이나 방향에서 새로움을 모색하는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상계나 천상계, 명부 등 비일상적 공간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기대, 광정식, 조재현, 원대연)뿐 아니라 일상적 공간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탁원정, 지연숙, 이강엽).

고전소설의 담론 혹은 서술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예컨대 김현주나 윤채근의 연구는 고전소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전소설의 미학을 밝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되었던 젠더에 관해서는 최근 그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는 듯하다. 개별 작품론에서 거론된 것을 제외하면 젠더 비평의 방법론에 대한 최기숙의 논의가 있는 정도이다.

4. 덧붙이는 말

이상으로 작년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았다. 능력이 부족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논문도 있을 것이고 잘못 파악한 것도 있을 것이다. 최근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한 사람의 연구자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문 간의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못하면서 연구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논문을 ‘생산’하는 듯하다. 또 논문은 양적으로 증가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학문이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꾸기 힘들다고 본다. 학계의 중진과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한 근본적이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고종민, 「심청전에 수용된 봉사전승의 양상과 의미」,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모티프 구현 양상과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성지, 「고려시대 기이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야마다 료코, 「한국과 일본의 17~19세기 敍事文學에 나타난 男女 愛情關係 비교연구 :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오대혁, 「『금오신화』의 연구 : 선사상적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요시오카 히로토, 「한국의 <심청전>과 일본의 <소야회>의 비교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원대연, 「고소설에 나타난 용궁·동굴 공간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유광수, 「〈옥루몽〉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유육례, 「〈홍부전〉의 변이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문성, 「필사본 춘향전의 필사 의식과 문예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 왕족과 궁녀의 휘절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장연호, 「韓·中 訟事文學의 比較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정인혁, 「조선후기 전계 단형서사체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계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지연, 「〈옥루몽〉의 개작 양상과 그 소설사적 성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석사학위논문

김미선, 「〈화정선행록〉 연구 : 결연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선, 「최부 『표해록』의 기행문학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미숙, 「사찰연기담의 소설적 양상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수영, 「〈要路院夜話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진선, 「야담집 소재 여성담의 존재양상 연구 : 어우야담, 청구야담, 계서야담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현화, 「『기재기이』의 불교문학적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문성대, 「『친예록』의 이본과 서사방식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반재유, 「〈창선감의록〉의 갈등구조 연구 :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안나미, 「월사 이정구의 <임진피병록>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안민정,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성의 미학연구 :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선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양민희, 「〈변강쇠가〉 연구 : 등장인물의 기능과 특성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엄태웅, 「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오유신, 「협동학습을 적용한 고전소설 교육 연구 : 〈홍길동전〉과 〈박씨전〉을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유숙생, 「〈인현왕후전〉과 〈매기전〉 대비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윤유미, 「〈허생전〉에 나타난 풍자성과 사상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민정, 「〈구래공정충직절기〉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원상, 「『금오신화』에 나타난 제사상과 현실비판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종필, 「〈최고운전〉의 초기 소설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한나, 「조선후기 애정소설의 여성주인공 성격 변모 양상」,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현주, 「『천예록』 소재 신이담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6.
 장교윤, 「〈변강쇠가〉의 갈등구조와 성의 의미」,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6.
 정수정, 「〈적성의전〉의 심리학적 연구」, 인제대 석사학위논문, 2006.

2. 단행본

- 김광순, 『고소설사』(택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3), 새문사, 2006.
 김문희, 『전기소설의 서술문체와 환상성』, 보고서(애정전기소설의 문체연구, 2003년도 서강대), 2006.
 김우환, 『고전소설의 윤리적 조명』, 한국학술정보(조선조 윤리소설 연구, 1994년도 한양대), 2006.
 김일렬, 『한국고전소설 관계 저서 및 작품집 목록』, 새문사, 2006.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서(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2005년도 고려대), 2006.
 김진규, 『조선조 포로소설 연구』, 보고서(조선조 포로소설 연구, 2003년도 동의대), 2006.
 김진영, 『고전소설의 전통과 변이』, 태학사, 2006.
 김현주, 『고전서사체 담화분석』, 보고서, 2006.
 박기석, 『열하일기의 재발견』, 월인, 2006.
 신태수, 『한국 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푸른사상, 2006.
 이강욱, 『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2006.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장시광,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한국학술정보(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2004년도 서울대), 2006.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上, 下), 박이정, 2006.

3. 역주/번역서

- 이운석·허경진 등 교주, 『금방울진 김원진 적성의전 만언사』, 경인문화사, 2006.
 이운석·김경숙 교주, 『남정팔난기』(연세국학총서 34)(세책 고소설 10), 이회문화사, 2006.
 이운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1(연세국학총서 34)(세책 고소설 14), 경인문화사, 2006.
 이운석·최우영 교주, 『옥루몽 1』(연세국학총서 34)(세책 고소설 11), 경인문화사, 2006.
 김풍기 교주, 『옥루몽1-5』, 그린비, 2006.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명행정의록 1-4』(낙선재본고전소설총서 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신익철·이형대 등 옮김, 『어우야담1-2』, 돌베개, 2006.
 장시광 교역,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립전』, 한국학술정보, 2006.
 최기숙, 『창선감의록』, 현암사, 2006.
 김수봉, 『한글필사본 고소설 역 주해』(한글필사본 고소설 역 주해 총서 6), 국학자료원, 2006.

4. 학술지 게재 논문

- 강현모, 「〈옹고집전〉의 서사구조와 교육적 의미」,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2006.
 경일남, 「고전소설의 동요 활용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6.
 _____, 「고전소설의 조선조 민중언로 수용과 그 문학적 의미」, 『인문학연구』 33권 1호 통권67호,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2006.
 광정식, 「〈유씨전〉의 현실성과 환상성」, 『어문학』 92, 한국언어문학회, 2006.
 _____, 「고소설에 나타난 冥府의 형상과 작중 역할」, 『어문학』 94, 한국언어문학회, 2006.
 권도경, 「〈황생전〉의 서사 갈등의 양상과 양식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학회, 2006.
 권순궁, 「〈토끼전〉의 매체변환과 존재방식」,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권택경, 「<최고운전>의 서사구조」, 『사립어문연구』 16, 사립어문학회, 2006.
-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18~19세기 국문소설의 한역 및 개작에 대한 연구」, 『동양학』 39, 동양학연구소, 2006.
-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 친영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5, 동양고전학회, 2006.
- _____,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 본전(本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학회, 2006.
- 김경섭, 「<양산백전>에 나타난 염정담과 군담의 결합 양상」,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 김기형, 「<장화홍련전>의 무속적 세계관」,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김동석, 「李鈺의 『梅花外史』의 비평과 그 서사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김병권, 「<소대성전> 창작 원천의 역사성명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 김수중, 「춘향과 심청의 축제적 성격 고찰」,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2006.
- 김승호, 「海印寺留鑿八萬大藏經開刊因由의 출현시점과 소설사적 위상 검토」,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2006.
- 김용철, 「<피생명몽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 김위경, 「야담에 나타난 우도의 제재적 변모와 그 문화적 의미」, 『어문논총』 44, 한국언어문학학회, 2006.
- 김윤희, 「<계우사>의 작품 세계와 창작 기반」,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2006.
- 김은자, 「고소설을 통해본 19세기 사연(私宴)의 공연문화 양상 - <화충선생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2006.
-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2006.
- 김정은, 「히스토리에서 스토리로」,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2006.
- 김중균, 「해외개척 대도(大盜)설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 김종철, 「<적벽가>의 대칭적 구조와 완결성 문제」,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 김준형, 「근대 전환기 <옥소선(玉蕭仙) 이야기>의 개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_____, 「『친예록』의 원형재구와 향유양상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 김진영, 「고전소설의 문화적 전통과 계승 방안」,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2006.
- 김풍기, 「고전문학 작품의 정체성과 그 현대적 변용 -<옥루몽>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학연구』 30, 고전문학회, 2006.
- 김현양, 「<유충렬전>과 가족애」,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김현영, 「<王會傳>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금화사몽유록>과의 대비를 통하여」, 『고소설연구』 21, 고소설학회, 2006.
- 김현주,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 『고소설연구』 21, 고소설학회, 2006.
- 김혈조, 「燕巖의 <烈女咸陽朴氏傳> 再考 :새로운 자료 소개를 겸하여」,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 김형섭, 「李福休 歷史散文中에 形象화된 인물」,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김혜경, 「야담에 나타난 여성의 우정 실현의 두 양상」, 『돈암어문학』 18, 돈암어문학회, 2006.
- 류준경, 「17세기 고전 장편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 박상란, 「21세기 춘향전 수용의 양상과 의미 -트렌디 드라마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2006.
- 박성순, 「우화소설의 생성과 민중문화:<老蟾上座記>와 <鹿處士宴會>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박영희,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시집간 딸의 친정 살리기와 출가의외인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박일용,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의 이념과 역설」,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방동수,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난 치산담(治産談)의 유형과 성격」,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 배연형, 「<별춘향전> (완판 29장본) 연구」,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 다니엘 부세, 「<구운몽>의 제목에 대하여」, 『동방학지』 13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 서신혜, 「〈貨殖傳〉 수용의 양태와 경향」,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서인석, 「고전문학과 편견 ; 영웅소설 연구 사의 담론들-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서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재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서혜은,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 소인호, 「17세기 고전소설의 저작 유통과 『화몽집』의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손찬식, 「〈趙完璧傳〉을 통해 본 지봉 이수광의 월남 인식」,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신상필, 「한어학습으로 본 소설 환경」, 『동방한문학』 30, 동방한문학회, 2006.
- _____, 「이서, 역관 계층 소설 관련 양상의 현실적 근거와 그 실제」,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 신선희, 「디지털스토리텔링과 고전문학」,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신익철,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어우야담』과 <왕의 여자>」,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 신익호, 「〈허생전〉 다시 읽기」,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2006.
- 신태수, 「임란전후 한·중 소설의 붐기」, 『한남어문학』 3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6.
-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 <박씨전〉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8, 돈암어문학회, 2006.
- 안대희,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 안동준, 「방외인문학의 재인식」,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안영동,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영화, TV드라마 사극과 한문학」,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 오대혁, 「나말여초 傳奇小說의 형성 문제 - 불교계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오윤선, 「〈옥중화〉를 통해 본 이해조 개작 판소리의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1, 판소리학회, 2006.
- 유광수, 「〈구운몽〉: 자기 망각과 자기 기억의 서사 : 성진이 양소유 되기」,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육재용, 「〈三快亭〉 研究」,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江陵秋月傳〉의 창작성 고찰」,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2006.
- 윤세순, 「17세기 소설류의 유행양상」, 『동방한문학』 31, 동방한문학회, 2006.
- 윤재민, 「〈洞仙記〉의 장르적 성격」,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 윤주필, 「베트남의 <鼠精傳〉과 한국의 <壅固執傳〉의 비교 : 眞假爭主 설화의 수용미학적 관점」,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윤채근, 「한문소설에 나타난 시선의 양상 -근대적 리얼리티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2006.
- _____, 「企齋記異」의 창작 배경과 그 소설적 의미 : 수사적 蔓衍性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응우엔당나, 「베트남의 傳奇小說」,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이강엽, 「〈九雲夢〉의 문학지리학적 해석」,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2006.
- 이강욱, 「패설과 소화, 패설 속의 소화」,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 이기대, 「〈삼성록〉을 통해 본 친문 인식의 소설적 반영 양상」,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
- 이명현, 「〈林慶業傳〉의 비극적 역사체험과 세계인식」, 『우리문학연구』 19, 우리문학회, 2006.
- _____, 「〈유생전〉, 〈방씨전〉, 〈유문성전〉비교 연구」,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2006.
- 이민희, 「〈여용국전(女容國傳)〉 연구」, 『동방학지』 13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 _____, 「책패 송신용(宋申用)과 교주본 <여용국전〉 연구」, 『한국민족문화』 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 이상구, 「17~19세기 漢文小說의 전개양상」,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이재영, 「역사소설에 나타난 기억 구성 방식 연구 -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 『어문논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의 소설 판본」,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텍스트 읽기 -<춘향전〉의 춘당대 시과 대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이지하, 「<潘氏傳>의 이중적 성격과 그 의미」,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_____, 「동서갈등(同塚葛藤)전개 양상을 통해 본 <위씨절행록(衛氏節行錄)>과 <반씨전(潘氏傳)>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이창현, 「경관방각소설의 간기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학회, 2006.
- 이태화, 「정신적 재무장을 위한 의인화 수법 -<서재야회록>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접근」,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이후성, 「최정진(崔鼎鎭)의 <잠녀전> 연구」,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2006.
- 임완혁, 「조선전기 筆記의 전통과 稗說」,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 임철호, 「<후통일기> 연구(1) - <임진록> 전승<후통일기> -」,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6.
- _____, 「<후통일기> 연구(2)」,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2006.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장경남, 「<문성기> 연구」,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대하소설 갈등담의 구조 시론」,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2006.
- _____, 「빈계무신 이데올로기의 전승 과정과 대하소설에의 수용 양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24, 동양고전연구학회, 2006.
- 장 적, 「<玩月會盟宴>研究及與中國小說之比較」, 『동방학』 1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6.
- 전혜경, 「<금오신화>의 한국문학사적 위상 :한·중·월 전기(傳奇)소설의 비교적 관점에서」,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정규식, 「<최치원>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나말여초 전기문학과 최치원」,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2006.
- _____, 「『삼국유사』 所載 「서동설화」의 수사학적 이해」,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 정길수, 「<黑衣人傳> 연구」:창작의식과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_____, 「17세기 동아시아 소설의 遍歷構造 비교 :<구운몽>·<肉蒲團>·<好色一代男>의 경우」,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정명기, 「<위생전(위경천전(韋敬天傳))> 교감의 문제점」,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정병설, 「<구운몽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정영신, 「<화문록>의 인물 갈등과 옹호에서 보여지는 환상성과 페미니즘적 성격」, 『동방학』 1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6.
- 정용문,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의 상관성」,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006.
- 정준식, 「국립중앙도서관 <김상서전>의 자료적 가치」,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 _____, 「성대본 <김상서전>의 생성요인과 자료적 가치」,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2006.
- 정천현, 「『삼국유사』와 『겐코오샤쿠쇼(元亨釋書)』의 역사인식 비교」,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 정하영, 「<要路院夜話記>에 나타난 편견의 양상과 해소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정학성, 「<赤壁歌>의 <三國志> 變容 樣相」,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정환국, 「許生故事와 북벌인식의 추이」,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_____, 「『삼국유사』의 인용자료와 이야기의 중층성」,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회, 2006.
- 조도현, 「<薛公瓚傳>을 통해 본 초기소설의 유통양상」,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006.
- 조현우, 「『화사』의 사서 체재(體裁)와 그 의미 -치란(治亂)의 반복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 _____,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_____, 「몽유록의 출현과 고통의 문학적 형상화 -<원생몽유록>과 <금생이문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조혜란,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 _____, 「조선의 여협(女俠) 검녀(劍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_____,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진은진, 「남성 작가의 <춘향전> 수용과 향유 방식」,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 陳益源, 「越南漢文小說『傳記摘錄』『異聞雜錄』與中國小說之關係」,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진재교, 「한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방향 ; 한문의 서사전통과 근대계몽기 신문의 서사 -서사의 근대적 모색-」, 『한국한문학연구』 38, 한국한문학학회, 2006.
- 전웅이아, 「베트남의 漢文章回小說」,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車溶柱, 「15·16세기의 漢文小說 概觀」,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차충환, 「<문장풍류삼대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 _____, 「<효의정충예행록> 연구」,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五老峰記> 연」,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최광석,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서술자 개입 양상과 지평전환」, 『판소리연구』 22, 판소리학회, 2006.
- 최기숙, 「여성 원귀의 환상적 서사화 방식을 통해 본 하위 주체의 타자화 과정과 문화적 위치 -고전 소설에 나타난 자살과 원귀 서사의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젠더 비평: 메타 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고전 서사의 젠더 비평적 독해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최운식, 「<김해진진>의 서사구조와 작가의식」,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 최윤희, 「<화산기봉>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19, 우리문학학회, 2006.
- 최진아, 「중심서사를 구성하는 주변서사의 힘 :배형의 『전기(傳奇)』 <최위>와 베트남의 설화 <월정전(越井傳)> 비교」, 『고소설연구』 21,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최진형, 「<홍부전>의 전승 양상」,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최호석, 「안성관 방각본 출판의 전개와 특성」,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학회, 2006.
-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 _____, 「<옥원재합기> 연작의 서사 양식 연구」 -사전 전통의 소설적 전화 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_____,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학회, 2006.
- 한예원, 「『삼국유사』의 불교설화를 통해 본 편찬의도」, 『동양한문학연구』 23, 동양한문학학회, 2006.
- 한의승, 「<片玉奇遇記>의 소설사적 성격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황수연, 「조선후기 첩과 아내: 은폐된 갈등과 전략적 화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